

금강고려화학, 김춘기 사장 선임



금강고려화학(KCC)은 2월27일 이사회를 열어 김춘기 영업본부장(부사장·58)을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현대그룹 인수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고주석 사장은 이사회에 앞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신임 김춘기 사장은 1946년 강원도 강릉 출생으로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 고려화학에 입사해 29년 동안 상무, 전무 등을 거쳐 2002년 KCC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Chemical Journal 2004/03/02>